

■ 독감백신 접종 사망자 잇따른 발생에 불안감 확산

“접종하러니 짹짹”... 보건소·병의원 ‘헿’

병의원마다 백신 종류 문의·예약 취소 요청 쇄도
시민들 우왕좌왕... “지나친 공포감 삼가야” 지적

“독감 백신을 맞은 이후 며칠 사이에 10명 이상이 숨진 와중에 아직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백신을 맞았어요. 정부가 사망 원인을 정확히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보려 합니다.”

전국적으로 국가 무료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데다 지난 21일 제주에서도 사망자가 나오자 시민들이 접종 여부를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질병관리청은 사망 원인과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백신 접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정림(70·여)씨는 “아프지 않기 위해 주기적으로 독감 접종을 해왔는데, 나이가 있어서 독감백신을 맞지 않으면 겨울을 보내기가 더 두려워 백신을 맞아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온라인 게시판 등에도

독감 백신 접종 여부를 두고 갈등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한 이용자는 “무료 뿐 아니라 유료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사망하니 더 갈등이 된다”며 “아직 무료 접종 기간이 좀 남았기도 해서, 일단 맞지 않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22일 오전 제주도 남동쪽 제주보건소의 접종 대기장소는 텅 비어 한산한 모습이었다. 제주보건소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시작한 첫날인 지난 20일 백신을 맞으려는 이들이 몰리며 혼잡한 모습을 보였던 때와는 상반되는 풍경이었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백신 안전성을 문의하는 전화도 종종 오고 있고, 무료 백신 접종 첫날과 둘째 날 보던 대기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제주시내 병·의원엔 독감 백신 접종 예약을 취소하거나 보류하겠다는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 도남동 소재 한 병원 관계



독감 백신을 접종했던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의 보건소 발걸음이 뜰 전망이다. 사진은 방문객이 크게 줄어 한산한 제주보건소 모습. 강희만기자

자는 “독감 접종을 예약했던 분들 중 일부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미뤄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독감 백신 종류를 묻는 전화도 많이 오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지나친 우려를 삼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날 독감 접종을 하기 위해 보건소를 찾은 김운주(44·여)씨는 “독감

접종 사고는 올해만 특별히 문제가 됐던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 동안에도 면역력이 약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던 분들에게 문제가 생겼었지만 유료접종이었고, 워낙 수가 적으니 모르고 지나갔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 접종 여부를 선택하고, 관련 수칙을 잘 지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위협만 하려...” 계획살인 의도 부인

오일장 살인사건 첫 재판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일을 마친 후 귀가하던 여성을 살해한 20대가 법정에서 계획적으로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관수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살인과 사체는닉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50분쯤 제주도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B(39)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1만원과 휴대전화,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범행 전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이버머니를 선물하느라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 측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의 위협을 받다 밭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가 살해한 이유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

에 “처음부터 피해자를 죽일 목적은 없었고 위협만 하려고 했다”며 계획살인 가능성을 부인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범행 6시간 후 다시 사건 현장을 찾아 시신을 숨기려다 실패한 이유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가 울렸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이후 A씨는 휴대전화를 들고 다시 달아났으며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체크카드도 편의점 2곳에서 음식 등을 구입했다.

재판부는 11월 16일 2차 공판을 열고 유족들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은 지난 9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A씨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청원 글에서 “피의자는 1t 담자를 소유하고 택배 일도 했는데 일이 조금 없다고 교통비까지 아껴가며 걸어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끔찍한 일을 벌였다”면서 “갖고 있던 흉기로 살인한 것으로 미뤄 계획 살인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내 딸이 아니었어도 누군가 그곳을 지나갔다면 범죄 피해자가 됐을 것”이라며 “또다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달라”고 했다.

이상민기자

수백명 투숙 호텔에 불 지른 20대 징역 2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수백명이 투숙한 호텔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관수 부장판사)는 22일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2시26분쯤 제주도 연동동의 한 호텔 10층 객실의 소파 등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호텔에는 520여명이 투숙하

고 있었지만 불이 객실 내부에서 꺼지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신변을 비판해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객실에 연기가 차자 호텔 측에 불이 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혼자 유유히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명이 투숙한 호텔에, 모두 잠든 새벽 시간에 불을 질러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민기자

손녀 추행 80대 법정구속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관수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친족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초등학생이던 친손녀를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

됐다. A씨 측은 친손녀 아버지이자 자신의 아들이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 합의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의서가 피해자와 맺은 진정한 합의인지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요청했지만 피고인 측이 이를 거부했다”면서 “따라서 이 합의는 정당한 합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코로나19 방역 치질을 야기한 목사부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제주도 관계자가 22일 제주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강희만기자

역학조사 거짓진술 목사부부 손배 피소

도, 어제 법원에 소장 접수... 총 1억2000만원 규모
“방문장소·동선 등 숨겨 온천발 코로나19 감염 지속”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동선을 숨기는 등 거짓 진술한 목사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6·7월 제주관광에 나섰던 서울 강남구 모녀와 경기도 안산시 60대 남성 등이 세번째 손해배상 청구다.

제주자치도는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거짓 진술한 제주 29번 확진자 A씨와 33번 확진자 B씨를 상대로 22일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확진판정을 받은 후 거짓으로 진술했을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

도 10여 차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당국에 방문이력과 동선을 숨기고 허위 진술을 했다.

감염병 예방법에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부부의 거짓진술로 산방산탄산온천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앞서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CCTV 확인이 이뤄질 때까지 이어진 이들의 비협조와 허위 진술로 방만한 업체에 대한 긴급방역과 접촉자 파악에 따른 자가격리 등 신속한 초기 대처가 지체됐다. 또한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접촉자와 방문 업체를 통해 추

가적으로 파생 접촉자들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추가 조사를 통해 확진자 7명(도외 1명 포함)이 확인됐고, 확진자의 접촉자 113명이 발생해 전원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들에게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며 신속한 초기 대처 실패는 확진자 및 접촉자의 확산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방역소독비용 139만원, 확진·접촉자 생활지원비 735만원, 검사비용 2515만원, 진단 검사 물품구입비 1286만원 등 총 1억2557만원이다.

앞서 도는 A·B씨를 감염병예방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지난 9월 3일 제주지방법원에 고발했다. 백귀키기자 haru@ihalla.com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원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 미니향 - 적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 제라온 -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 (국내산 레몬)
-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해, 신애강, 탐나는봉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온, 탕자모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3년생
감귤 1,3,4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유라실생 3,4년생
병자묘 1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온(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레조생, 궁천, 궁천변이지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레조생
- 원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변이지
- 천천(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